



승부사 이세돌 9단의 바둑 인생

‘갯(God)세돌’ 열풍이다. 이세돌(33) 9단이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에 값진 1승을 따내면서 한층 거세지고 있다. ‘1202개의 중앙처리장치(CPU), 176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최신 알고리즘 기술로 무장한 알파고를 한 잔의 커피만으로 상대했다’는 의미의 대국 장면을 인터넷에 올리며 “인류 대표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 뿐 아니다. 그의 화려한 기록, 흥미진진한 바둑 인생까지 더해지면서 연예인을 제치고 인터넷 검색어 맨 위를 차지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 내용은 ‘아록’으로 묶여 온라인에서 퍼날라지고 있다. 5차례의 대국을 통해 보여준 솔직함, “백으로 이겼으니 (마지막 대국은) 흑으로 이겨보고 싶다”고 말하는 승부사의 기개와 도전 정신에도 열광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패원 숫자가 늘어나던 바둑학원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는가 하면, 바둑고와 동아리 형태의 중학교 바둑부 창단 소식에도 난데없는 관심이 쏠린다. 이 정도면 신드롬 수준이다.

치열한 전투형 기풍...가족엔 휴머니스트

합계 30단 넘는 바둑 가족

12세 프로 입단...17살엔 32연승

실어증 후유증으로 기관지 상해

조훈현-이창호 잇는 ‘인류 대표’

이세돌은 신인 섬소년이다. 지난 1983년 3월 2일 신안군 비금면 고도리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큰 형은 프로기사 이상훈 9단, 작은 누나 이세나(39·아마 6단)씨는 월간바둑 편집장이다. 세돌은 순수 한글이름으로, 누나 이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전(98년 작고·이수오 아마 5단)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 원래 ‘세’자와 ‘돌’자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셨다”고 했다. 일각에서 ‘돌(바둑돌)로 세계를 제패하라’는 뜻에서 지어졌다는 말을 들며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바둑계에서 전설처럼 전제내려오는 “너는 머리가 나쁘니 바둑을 접어라”는 아버지 말을 듣고 공부로 전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는 차남 차돌씨 얘기도 낭설이라고 했다.

이세돌은 5살부터 바둑을 배웠다. 교편을 잡았던 아버지는 아들의 기재(棋才)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손수 바둑을 가르쳤다. 8살에 아버지 실력을 뛰어넘게 되자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둑 유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 이후 권감용 바둑도장(현 권감용국제바둑학교)에서 바둑을 배우게 된다. 권감용 도장은 국내 프로기사들의 산실로 통한다. 최철한은 이세돌과 함께 바둑 수업을 받은 ‘동문’이기도 하다.

이후 12세인 1995년 7월 2일 프로 입단에 성공. 그해 제 7회 동양증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예선에서 최정원 5단(당시)을 꺾고 첫 승을 거뒀다. 이후 정규 승단대회를 통해 16살이던 1999년 3단으로 승단했다. 입단 초기만해도 성적은 특출하지 못했다. 바둑계에서는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지만 격정적이고 성급한 성격은 그를 평범한 기사의 범주에 들게 했다.

그러나 호주머니 속의 송곳은 뚫고 나오기 마련. 2000년을 전후해서 이 9단은 발군의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이세돌은 3단이던 지난 2000년 제 5기 박카스배 천원전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2002년에



프로기사로 갯 입단한 이세돌(오른쪽)이 지난 1996년 호남바둑을 대표하는 조훈현 9단과 기념대국을 하고 있다. LG배 창설 기념 이벤트로 열린 이 대국은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기원 제공>

는 제 15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대회에서 생애 첫 국제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17살이던 2000년에만 32연승을 달리며 당해 최다승·최다연승을 기록하는 등 ‘태풍 세돌호’는 당시 바둑계를 강타했다.

그는 그러나 2001년 하반기 이후 승단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프로로서 대국료가 없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단’이 실력의 가능지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바둑계는 이후 2003년 1월 승단 규정을 바꿨고 이세돌은 직후부터 상승세를 이어가 그해 입신(入神·9단의 별칭)의 경지에 올랐다. 프로 입단 8년, 20세 4개월 만으로 기존 이창호 9단의 최연소 최단기 9단 승단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러한 ‘태풍 세돌호’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세돌 어록도 이 때 나온 게 많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싸울만해서 싸워요. 수가 보이는데 어찌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내가 우승해서 미안합니다”, “불리하다 보니 이기자는 생각 없이 대충 뒀는데 이겼네요”, “내가 최강인 것 가라. 실력적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기고 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세돌답지 않은 기보는 남기고 싶지 않다” 등 화려하고 자신감이 묻어난다.

기풍도 비슷하다. 매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바둑을 두는 것으로 유명하다. 격정적이고 공격

적이며 날카로운 승부호흡을 지닌 전투형 기사라는 게 바둑계의 공통된 평이다.

이세돌은 2007년~2008년 연속 상금왕에 오르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흥미진진한 그의 바둑 인생은 2009년 5월 프로기사회가 한국바둑리그 불참을 선언한 자신에게 징계 의사를 비추자 7월 한국기원에 ‘휴직계’를 제출하며 또 한 차례 파문을 일으켰다.

1인자 활동 중단으로 바둑계는 발각 뒤집혔다. 하지만 대회를 통해 2010년 1월 복귀를 결정, 이후 24연승을 거두며 다시 상승세에 올랐고 2010 광주 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승부사지만 이세돌은 가족을 챙기는 ‘휴머니스트’이기도 하다.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해외를 다녀오다 면세점에서 동갑내기 아내를 위한 화장품을 잔뜩 사고 캐나다에서 공부하던 딸 해림양을 만날 생각이 ‘말바보’ 미소를 지어 보이던 모습도 보여줬다.

전화 통화라도 할 때면 여성과 통화하는 것 같은 작각이 늘 정도로 ‘미성(美聲)’을 가진 이 9단의 목소리는 승부 스트레스로 실어증에 걸렸던 후유증이 라는 게 누나 이세나씨 설명이다. 이씨는 “프로 데뷔 직후인 14세무렵 승부 스트레스로 실어증에 걸렸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기관지가 상했다”고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알파고, 인간이 해 볼 수 있는 수준 기존 수법에 의문...더 연구하겠다”

“원 없이 즐겼다” 소감 밝혀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대국을 모두 마친 후 “실력 우위는 인정 못하겠지만 집중력은 역시 사람이 이기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세돌은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를 모두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알파고의 두는 스타일, 대국 환경 등이 너무 달라 적응하는 데 시간 걸렸다”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없이 집중하는 알파고를 보면 다시 붙어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말했다.

그러나 “알파고가 상수가 아니라 인간이 아직은 해볼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결과가) 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국을 하며 여러 바둑 격언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면서 “알파고를 보면 기존의 수법에 의문이 들었다.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세돌은 “이번 챌린지 매치가 끝나서 아쉽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는데 결국 해내지 못해서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바둑은 즐기는 게 기본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둑을 즐기는지 의문이었다”면서 “이번 대국은 원 없이 즐겼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세돌 9단과 딸 해림양.

상변에서 안전 추구...초반 우세 못지켜

5국 패인

‘인공지능’과 마지막 대결을 펼치는 이세돌 9단은 5국 초반 탄탄한 실리작전을 들고 나왔다.

흑을 잡은 이세돌 9단은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경기 제5국에서 첫수로 우상귀 소목을 뒀다.

백을 쥔 알파고(AlphaGo)는 좌변에 양 화점을 차지했고 이세돌은 3수로 우하귀 소목에 이어 5수로 우상귀를 날릴자로 집을 굳혔다. 반면 양 화점으로 출발한 알파고는 이세돌의 실리작전에 맞서 우변과 중앙에 거대한 세력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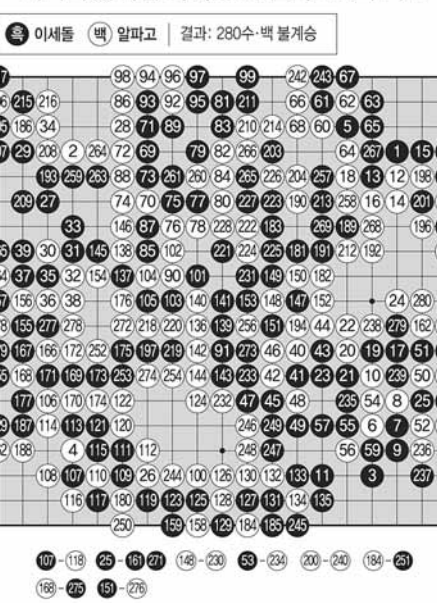
5국은 이세돌이 중반 초입 우하귀 점전에서 알파고의 잔 실수를 틈타 40여 집에 이르는 큰 모양을 만들어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세돌은 우세를 의식한 탓인지 지나치게 안전 위주의 행마를 펼쳐 백 세력을 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결국, 알파고는 우변에서 중앙까지 큰 집을 만들어 형세의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이세돌이 상변에서 지나치게 움츠러든 것이 유리했던 형세를 팽쳤다.

특히 타계 과정에서 79수로 우측으로 뺏지 않고 안전하게 살겠다며 안행을 만든 것이 이세돌 답지 않은 큰 실수였다. 이 한 수로 알파고가 거대한 백 모양을 형성해 단숨에 형세가 엇비슷해지고 말았다.

세기의 맞대결 이세돌 vs 알파고 5국 기보



사진/알파고, 시아메오로 /연합뉴스

마음이 다급해진 이세돌은 좌변 백집에 뛰어 들었으나 결국 바뀔지기 손해를 보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그럼에도 이세돌은 1분 초읽기에 몰리면서 마판까지 투혼을 발휘했으나 이집게도 격차를 좁이지 못했다. 이세돌이 끝내기에서 상당히 따라붙었지만 프로기사들의 판단은 1집만차 이상이었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식	12,500원	8,500원
월식/특별식	14,500원	9,000원
		5,0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경매학원 금맥강좌

경매 실무 위주 단기 강좌입니다. 경매에 관심있는 분이나 컨설턴트업에 도전하려는 분은 지금 연락주시시오. 경매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열립니다.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 완전 초보에서 실전 투자까지 1개월 완성입니다.

수시접수

- 시간
 - 오전반 화·목 10:00~12:00
 - 오후반 화·목 19:00~21:00
 - 주말반 토·일 14:00~16:00
- 장소: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 4층(지하철 문화전당역 5분)
- 과목: 실전경매(1개월 완성)
- 교수진
 - 한국토지경매연구원장 김광민
 - (주)Today 옥션 소장 이은진

실전경매 교수 양성의 요람

한국토지경매학원

☎ 062-229-1512

2016년 부동산 전망 및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특강

99%적중률...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소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일시	2016. 3. 16(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교시 (1) 2016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쪽집게 투자 전략 대응법 공개
(2) 부동산 지역별/물건별 맞춤 투자 전략

2교시 (1)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돈되는 부동산 매물 공개 및 정확한 수익성 분석
(2) 부동산 가격 상승 핵심지역 분석-임대수익과 시세 차이 동시 공략 비법

3교시 (1) 개발지 투자(소액포함)로 영월히 월세받는 비법 대 공개-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자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자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김영표 개재중

NAVER 영자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